8.15의 회고와 오늘의 문제

이 영 복
〈이대 간호대학 학장〉

36년간의 식민정책에서 벗어나 감격과 환희의 광복을 맞이한지 어언 27년이 되었다. 나는 이 두가지 숫자를 쓰면서 생각해 본다. 27년과 36년.

8·15를 전후해서 출생한 애기가 지금 만 27세의 씩씩하고 믿음직한 젊은이가 되어 있다.

얼마전 울산공업단지를 구경하러 갔을 때 "이 큰 공장을 움직이는 기술직과 사무직을 망라한 평균연령이 28세입니다"라고 돌은 설명이 기억난다.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세력과 풍토를 이룩하기에 필요한 햇수란 약 30년 정도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광복이전의 36년! 멀어지는 과거이기에 희미해지기는 하나 27년보다도 긴 세월인고로, 그 때를 산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하다. 36년이란 엄연한 역사는 좋든 싫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각 분야별 활동에 그 나름대로의 유산과 인습을 남기게 되었다. 그 중의 더러는 오늘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만들어낸 크고 작은 要因으로 36년간 자라났다가 아직도 가끔 그 모습과 습관을 들어내는 때가 있다.

× × ×

8·15이전 한국내 간호사업상황에 대하여는 그 수준이나 제도나 조직의 전체적인 면을 일괄해서 말하기 어렵다.

그리스도교 복음전도의 목적으로 東西의 간격을 안은채 이 땅에 와서 환자중심간호를 실천하고 교육했든 간호업무중심의 서양식 간호가 질적으로 차분히 성장하면서 하나의 조류를 형성했다. 한편 군국주의적 식민정책의 세력을 타고 진료중심으로 의사를 돕는 일에 역점을 둔 일본식 간호의 조류가 행정체계를 타고 양적인 발전을 몰고왔다. 이 두 조류는 민족적 수난을 겪는 동안 내용적인 통합과 융화를 완전히 보지 못한 채 다만 법적인 체제안에서만 최소한의 공통점을 유지하면서 36년간을 지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기관에서 일을 했든지 간호원의 길을 택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남다른 개척정신과 확

고한 직업의식이 싹텄으며 간호사업이란 체재와 그늘속에서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여성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는 용기와 신념이 있었든 것으로 안다. 적어도 그들은 자기자신보다는 그 무엇을 그 누구를 ——나라, 박애정신, 신앙, 하는 일, 환자, 부모, 친구——를 위해서 살고 일하려 했다.

× × ×

2차대전은 간호계에도 극심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간호교육은 대혼란을 이뤘고 간호원들의 대부분시간은 방공훈련으로 보냈으니 흰 유니폼은 소위 국방색 "몸베"와 두건으로 변했다. 수술실에서 조차 "알콜"부족으로 소독이 곤란했으며 입원환자 간호란 매우 엉성하였다.

해방이 되었다. 마음놓고 태극기를 흔들며 "동해물과 백두산을……"부르며 감격에 넘쳤다. 사람의 생각보다 빨리, 아니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했다. 비록 허리는 잘리었으나 美軍政 기간을 거쳐서 조국이 독립되었다. 선거를 통한 主權을 행사했으며 憲法도 선포되고 행정부도 조직되었다. 대한민국의 旅券을 가지고 세계각국을 다니게도 되었고 전문단체들의 국제기구 가입도 실현 되었다.

간호계의 활발한 움직임과 새로운 양상은 눈에 보일만큼 활기를 띄였으니 그 큰 이유중의 하나는 인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간호사업을 존중히 여기며 각종 복지후생사업이 발달된 미국의 軍政을 받게 된 것이다. 해방직후 미군정하의 행정조직에 따라 보건 후생부가 생겼고 그 안에 의무국, 예방의학국, 업무국, 후생국, 위생국과 더불어 간호사업국이 설치되었다. 간호사업국내에는 보건간호과, 조산사업과, 기관간호과 등이 있었다. 물론 한국지도자들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수고에 이때를 맞아서 다시 치하를 드리며 군정 간호고문관으로 업적을 올린 여러 미군간호장교들의 격의 없는 공로는 우리가 기리 기억해야 될 것이다.

당시 초대 보건후생부장은 이용설박사이었고, 간호사업국장으로 홍옥순선생이 맹활약을 하였다. 의료계와 간호계 중진 들이 간호사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주무국의 멤버들을 도와서 많은 안건들을 심의해 주었다.

서울市와 각 道에는 간호係를 설치하여 보건간호원 2명씩을 배치하였으며 중앙과 유기적인 사무연락을 취하였고 일제 때 받은 면허의 갱신이 시작되었다.

해방전에는 일곱 경찰서 위생계에 가서 순경으로 부터 간호원 면허장을 받아오던 우리가 중앙행정부내 간호부서에서 직접 간호원들로 부터 받아들고 나올 때 적은 일 같으나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군정 때 실시한 중요 사업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상기해 본다.

① 간호교육기관의 수준통일(최저 중학 3년 졸업후 입학해서 3년간 수업)과 표준교과과정에 의한 16개 간호고등 학교의 인가.

② 看護婦를 看護員으로, 産婆를 助産員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양성하든 제도를 간호학 과정으로 교육기관을 통합하였다.

③ 광복전에 속성교육을 받았거나 검정고시로 자격을 갖춘 간호원들을 재교육하는 동시에 전후의 새 지식과 간호법을 위한 지도자 강습을 1—3개월간씩 계속 실시하였다.

④ 정규간호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과 견습으로 경험만을 거친 자들을 위한 간호원자격 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일단 1949년 성공 했다가 6"25이후 부

구, 다시 1962년에 완전폐지됨)

⑤ 협회의 재발족과 국제간호협회에 가입 준비

역시 가장 감격스러웠던 일은 간호원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치적으로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기쁨이었다.

당시 간호사업국장을 위시한 행정부 직원 여러분과 여러 선배간호원들 특히 종합병원 간호원장들의 노력으로 1946년 11월 200여명의 감격적 모임이 명동 천주교회구내 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해방전의 소속과 배경을 초월하고 오직 간호정신으로 단결된 우리들은 개편발족된 협회의 사업과 목표를 정하고 특히 숙원이든 국제간호협의회의 正會員가입을 당면과제로 정하고(1949년에 가입) 맹활동을 벌리었으며 지부조직에 착수하였다. 각지방, 각기관에서도 간호업무를 위한 새로운 포석이 시도되었고 용기와 도전을 앞세운 많은 간호지도자들의 노고의 결과로 발전된 모습이 뚜렷하였다.

—중 략—

그때 이후 27년! 6·25동란의 격동과 참상이 간호계에도 예외없이 손실과 타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한편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직업적 성장과 난국에 대한 면역과 폭넓은 국제적광장으로의 진출하는 지름길이 된 듯 하다는 자위도 해보게 된다.

그외에 간호계를 중심하여 발생된 여러 모양의 사건들은 협회를 중심한 회원들의 단결, 조직력의 강화, 회관건립과 경제자립을 가져다 준 자극제가 된줄 알고 자부해 보기도 한다.

특히 대학사회안에서의 간호학과정의 성장과 활발해진 연구활동, 간호원의 활동분야의 확장, 軍간호의 발전과 기여, 국제사회로의 활발한 진출등은 타 여성직업분야와 비교해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모든 발전과정을 겪는 동안 행정직에서 교육면에서 또는 사회각계에서 간호사업을 여러모로 격려하고 밀어준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음 여러가지 문젯점들은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게 만성적이고 퇴보적인 난문제로 남아서 우리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며 한국간호사업의 전망을 흐리게하고 종국적으로는 국민보건을 위해 위축 시키고 있다.

순서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기록하기도 어렵고 원인이 결과를 낳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일면이지만 이제 그중 몇가지 문제점이라도 그려보기로 한다.

① 중앙행정부서인 보건사회부내에서 일체의 간호업무행정을 관장하면서 보사부장관을 보좌하는 간호사업주무부서의 활동의 약화이다. 행정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못하는 바도 아니기에 간호사업국으로의 승격을 우리는 계속 건의하고 있거니와 과(課)의 위치로서도 좀 더 전국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파헤쳐서 과감하고 알맹이 있는 적극적인 조정과 결단을 내려주기를 갈망한다.

② 간호교육제도의 장기적인 방안수립을 위한 문교부의 행정기능 일원화문제가 아쉽다. 여러해전부터 정비대상이 되었던 고등간호기술학교는 국민보건상의 문제, 교육적인 문제성을 많이 안고 있음을 문교당국과 보사당국은 잘 알면서도 종합적인 판정을 하지않고 있다.

③ 보건간호업무의 중요성과 우위성은 늘 말하면서도 일선보건소의 운영방안의 개선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직제 문제, 대우 문제, 물리적인 환경문제등 교육을 받은 간호원들이 교육과 문화수준이 올라간 대중을 상대로 일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수술이 아

쉽다.

④ 간호행위(혹은 간호기능, 간호업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일부인사 특히 의료계 인사들이 곡해하고 올바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간호업무가 즉 진료보조인양 생각하고 "간호"라는 본연의 기능과 그 사명을 부인하면서 까지 진료보조만을 내세우며 간호직을 경시하려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당하게 된다. 물론 이점 역시 간호원 자신들의 각성이 필요하거니와 특히 대중을 위하고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보건의료행정 및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의료계인사의 좀더 폭넓은 견해를 촉구한다.

⑤ 간호보조원제도의 탈선과 양적팽창문제이다. 본래 국민보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급의 양적보충보다는 간호기능의 계층적인 구조를 위하여 약간의 보조원양성을 계획했든 보사당국의 방침과는 달리 과장적인 선전과 영리적운영을 목적으로 양성기관이 난립되고 제도상혼란을 초래함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⑥ 무정견한 해외진출의 결과에서 오는 문제점들이다. 물론 좋은 의미의 해외 진출을 권장하며 장기적인 국제교류는 바람직하나 근자에 와서 많은 교육과 경험을 쌓은 간호원들 지도급인물들이 대거 진출하는 현상은 우리 모두가 깊은 고려와 조국과 국민을 함께 생각하는 큰 마음가짐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⑦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간호원자신들의 간호에 대한 참된 동기에서 오는 철학의 결핍이다. 이론보다는 실천, 자기 중심보다는 일 중심, 매일의 직무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와 성장하려는 노력 등을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다.

× × ×

앞으로 27년후이면 20세기는 끝난다. 오늘 27세의 성년들이 21세기에는 각 방면의 중견이라기보다 원로가 될 것이다. 20세기 종반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나간 27년간에는 자격과 형식과 제도와 수량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자질과 내용과 실력면에서 크게 발휘되고 변화되어야 겠다.

간호업무나 간호교육을 위한 법적, 행정적문제의 해결이나 전문직활동의 범위등을 대(對)사회적으로 파감하게 벌려야 겠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시야를 넓히고 변화가 큰 정치적, 사회적 여건 아래서도 올바른 정견(定見)을 세우고 나가야 겠다. 일부행정관서나 몇몇 의료인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보려는 시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줄 안다.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실력을 길러서 신념을 앞세우고 국가적 호응과 대중의 현명한 판단아래 전진해야 겠다. 이러한 우리들의 각오와 자세없이는 당면한 다음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어렵겠다.

① 질적인 향상과 양적수요를 적절히 대비하는 문제

② 간호본연의 사명완수와 학구적 성장을 병행시키는 문제

③ 나라와 국민을 보다 잘 봉사하면서 세계의 간호원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문제.

◇ ◇ ◇